



[4027호] 1면. 2006년 6월 8일자. 6월 1일 의협,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4264호] 1면. 2008년 10월 20일자. 2008년 10월 15일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 개최.



[4272호] 1면. 2008년 11월 17일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새로운 100년 향해 힘찬 첫 발 내딛는다.



[4342호] 10면. 2010년 2월 15일 의협-대한적십자사 아이티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4346호] 12면. 2010년 3월 22일 인터넷 의협신문 제호 [Kmatimes]에서 [Doctors News]로 변경.



[4398호] 1면. 2011년 3월 21일 [모바일 의협신문] 창간.



[4478호] 1면. 2012년 10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의사 한마음 가족대회.



[4538호] 1면. 2013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문화미당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결의대회.



[4612호] 1면. 2015년 6월 15일자. 6월 10일 의협 메르스 대응센터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4699호] 10면. 2017년 3월 20일자. [의협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역사와 함께 미래와 함께.

의료계 여론 대변...2005년 인터넷 의협신문 창간

15면에서 이어집니다

정부 정책·제도 개선 강행 비판 의료계 숙원 제도 개선 대안 제시

[醫協新報]는 정부의 강압적인 의사 면허제 철폐, 지정업무 종사 명령, 영업세 부과, 의료유사업자 입법, 보건소법 개정, 의과대학 신증설 정책 등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

의료계 숙원 사업인 강제지정제 전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공제회 설립, 의료신분보장정책, 의료개혁 추진 등 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누적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의료제도의 왜곡과 규제 속에 억눌렸던 민의를 분출한 의약분업제도 강행을 계기로 의권투쟁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며 의료계 여론을 대변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의 대변자이자 전달자로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약대 6년제,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도입,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철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일반적인 정책 강행에 저항하는 현장을 지켰다.

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단독 인터뷰



[의협신문]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전하기 위해 호외(號外)를 발행, 집회 현장에 배포했다. 2013년 12월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의협신문] 호외를 살펴보고 있다.

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진료실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물꼬도 텄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을 공약하지 않았다는 단독 보도를 통해 여론의 물줄기를 돌리기도 했다.

국내 소외 계층은 물론 수해·지진·태풍 등 외국 재난 현장에 취재기자를 파견, 나눔과 온정의 손길을 담아냈다.

[醫協新報]에서 [의협신문]으로 변화
[DOCTORSNEWS] 일일 방문자 1만명

[의협신문]은 1998년 3월 창간 31주년을 맞아 전면 가로쓰기 편집으로 읽기 편한 신문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섰다. 1999년부터는 외부 신문사에 의존해 제작하던 신문을 자체 인력을 통해 편집·출력까지 진행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는 1면 전면광고 대신 기사를 전진 배치,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고 있다. 2004년 1월에는 신문 제호를 한자 [醫協新報]에서 한글 [의협신문]으로 바꾸고 역사적 전통에 새로운 변화를 덧입히는 기틀을 다졌다. 2015년 1월에는 창간 이후 전 지면을 PDF로 DB화함으로써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3월 21일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인터넷 의협신문 [kmatimes]를 창간했으며, 2010년 3월 21일 현재의 [DOCTORS NEWS]로 제호를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DOCTORS NEWS]는 2023년 6월 현재 하루 방문자 1만 명을 뛰어넘어 의료계는 물론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학전문언론으로 새로운 도약을 계속하고 있다.

의대생·공보의 등 명예기자 제도 운영
시·수필 등 회원 위한 문화·예술 공간

[의협신문]은 의과대학생을 비롯한 예비의사와 공중보건·군요관 등



[의협신문]의 제호와 편집 형태도 56년 동안 변화했다. 창간호 때는 국·한문 혼용체에 세로짜기 편집형태였으나, 1998년부터 가로짜기 편집을 도입하고 한글전용으로 변경했다. 제호 역시 [醫協新報]에서 [의협신문]으로 바꾸고, 디자인도 한글에 적합한 글자체로 탈바꿈했다. 사진은 2004년 1월 [의협신문] 제호 변경 현판식.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기자들은 임상 및 기초의학 분야는 물론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 회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사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젊은 의사와 기성 의사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17면으로 이어집니다